

연중 제 3 주일

제1독서 : 이사야 8, 23-9, 3  
제2독서 : I고린 1, 10-13.17  
복 음 : 마태 4, 12-23

# 숲 정 이

이주일의 화답송

◎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로다.

## 강론

### 따라 나서기, 곧

김병희 신부/전동성당 보좌

이야기 하나 - 어린이 미사때 빵학년인 한 꼬맹이가 두손을 모으고 좀처럼 신부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이유는 미사 시간에 조용히 하면 은총표를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꼬맹이는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두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 은총표를 가득 받았고, 은총시장때 선물을 한아름 받아서 집에 돌아갔다.

이야기 둘 - 장례미사 때이다. "신부님 살고 싶어요." 라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간신히 첫마디를 꺼냈던 한 여자 대학생이 결국은 떠났다. 그 친구는 떠나기 전에 오래 전부터 가슴속에 담아 두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어렵게 용서했다. 그리고 하느님께 지난날의 자신의 모든 죄도 용서 청하면서 눈을 감았다.

이야기 셋 - 새벽미사때이다. 날씨가 너무 추워 이불 속에서 시계만 보고 미사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따르릉 -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른다. 그날 새벽미사는 늦게 시작되었다. 성당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호호 불어 가면서 머리에 까치집을 지은 게으른 젊은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사는 평소보다 늦게 끝났다.

떠나기가 왜 이렇게도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나섰습니다. 그리고 좀더 가시다가 두 명의 제자를 더 부르십니다. 그들도 곧 배를 버리고 따라나섰습니다. 미련없이 떠나는 삶이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자꾸 뭔가를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어지고, 아깝다는 생각에 쉬이 엉덩이를 뗄 수 없어집니다. 더 엉덩이가 무거워지기 전에 탈탈 털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론 냉정함과 단호함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서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시간만 축내지 말고 미련없이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바위 피정의 집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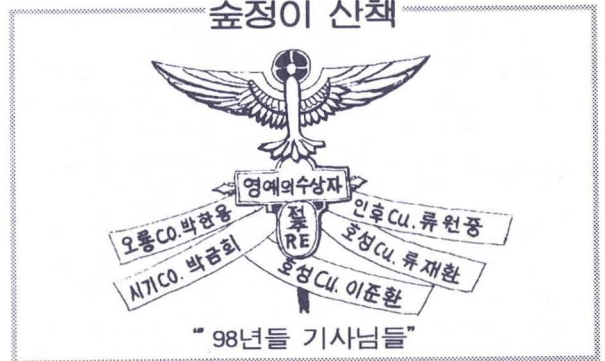
### 원인분석과 책임의식

요즘 신문을 펼쳐 들면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범조계는 오히려 비리로 얼룩져 있고, 정치권은 당파적 이해에 얽혀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당쟁만 일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실직자·노숙자들과 끼니를 굶는 아동들의 행렬은 더욱 늘어만 간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떤 일이든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은 분석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일에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따져보아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처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난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마치 결과만 있고 원인은 없는 것처럼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치판의 관행이었던 은근슬쩍, 두루뭉실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 마당에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책임질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길만이 분노와 고통으로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덕]

### 숲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사랑이신 아버지”

교황교서 「제삼천년기」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을 보도록”(49항) 초대하신다. 예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 전혀 가당치도 않은 곳에서 조차 -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49항). 그리하여 우리의 대희년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위대한 찬미 행위”가 되고 “아버지께 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50항).

성서는 예수님의 인생관,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의 전망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지내시면서 아버지 사랑의 힘과 따뜻함을 배우셨다. 그분께서는 성서와 함께 성장하셨는데, 성서는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깨우쳐 준다. 이사야는 “당신, 야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63, 16) 하고 말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느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3,19; 31,20 참조). 이와 같은 성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인생관,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의 전망을 형성했다. 짧은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기도와 행동을 통하여 그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가 당신 자신의 기도를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시각을 보여 주신다. 구속과 유죄 판결, 고문과 사형 선고에 직면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아빠.”(마르 14,36)하고 기

도하셨다. 이 아람 말은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던 가족적인 용어이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느님께 대하여 아무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아빠”는 성부와 그분의 유일무이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다. 예수님께 하느님은 참으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같은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당신과 동일시하신다.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는, 당신 “외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똑같은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차고 부드럽고 친밀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로마 8,15; 갈라 4,6) 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생활 양식을 통해 잘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행동으로부터 - 온갖 사람들과 그분의 만남 -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낸다. 강인하고, 창조적이며, 용서하고, 친절하며, 사랑하고, 자상하며, 기르고, 충실하며, 인내하고, 은혜로우며, 위로하고, 베풀며, 자비롭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 결국 한 마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 16)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1개월 1일 남았습니다.

♥ 가톨릭 예술단 단원 모집

- 공연계획 : 4월 -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9월 - 가무극[남이시여 사랑이시여] 서울, 전주 앵골공연
- 모집부문 : 연기자 및 스태프, 마감 : 99년 2월 3일(수)까지
- 문의 및 접수 : (0652) 285-0041~3, 전주교전주교구청 사목국

**김제치과의원**

송기삼(골롬바노)  
김성자(골롬바노)

김제시 요충동 금만사거리  
☎ (0658) 544-2875-6  
FAX (0658) 544-2876

**백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차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정환(마르코)  
인정미(프란치스코)  
☎(0652)253-2453 H·P 011-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고교학습지 : CASE, 중앙안전학습  
초중등학습지 : 핫 스테디

**군산동아서적**

두산동아, 대교(눈높이)총판  
김인곤·서현정(세실리아)  
학습지 상담 ☎ (0654) 445-3222

**LG 에어컨 예약**

15~25% 할인+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승연(도밍고)  
☎ (0652) 241-2000



궁금해요

저의 게으름 탓에 지난 성탄 판공성사 때 받은 보속을 아직도 못해서 성체를 못 모시고 있습니다. 다시 성사를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속하면 되는지요?

고백성사때 죄의 용서는 고백자 자신의 통회와 사제의 사죄경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해성사 후에 보속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해성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보속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보속을 못했다고 해서 고해성사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속이란 '죄의 결과에 대해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일'이며, 죄의 결과로 생겨난 잠벌(暫罰)을 기워 갚는 행위로서 죄의 용서 다음에 따라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보속은 일반적으로 고백자 자신의 앞으로의 영성적 이익에 맞추어 주어지며, 따라서 고해성사 후에 보속을 미처 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고 고해성사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보속을 하시고, 보속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음 고해 성사때 고해사제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보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심이 (1329) 김병오



노송신협 슈퍼마켓
□ 풍년제과 직영점
□ 목우촌 정육, 햄 직판장
(조합원은 장려금을 드립니다)
이 정 호(마르코)
안 병 옥(마르타)
전고정문앞 노송신협 2층
☎ (0652) 231-5270

LG화재 에이플러스
총괄보험법인대리점 전주지점
자동차/장기/상해/적금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 (0652) 241-1256-7
011-680-8929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 1. 사제양성후원회원 월레미사 :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2. 레지오 2단계 기사교육 : 1월 25일(월)~27일(수), 천호 피정의 집
3. 익산지구 사회복지 월레미사 :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창인동 성당
4. 중.고생 사순 부활연수 : 1월 30일(토)~31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5. 혼인강좌 : 1월 31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 센터
6. 은혜의 밤 철야기도 : 1월 29일(금) 오후 11시, 전동성당
7. 기억할 사제 : 1월 26일 - 서정수(알렉시오)신부, 14주기
1월 29일 - 이상호(아우구스티노) 신부, 15주기
8. 성부의 해 1월 피정 및 제 5회 정기총회 개최 : 1월 26일(화),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강사 - 서정현 신부님, 주최 -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 협의회
\* 1월 28일에서 31일로 예정되었던 남성 61차 꾸르실료 교육이 8월중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전주교구본부 운영위원 워크샵
일시 : 1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대회의실
10. 겨울농한기 농민피정과 가톨릭 농민회 23차 정기총회
일시 : 1월 29일(금) 오후 2시~30일(토) 오후 1시
장소 : 천호성지 피정의 집 문의 : (0652) 285-4205

김진철신부 주소변경(6월까지)
Fr. Vincent Kim Jin Chul
83 Gen Segundo st. heroes Hills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S
☎ 001(2)-63-2-410-8568

박동진신부 주소변경
P. Park Dong-Jin Bernard
Paroisse Saint Martin des Champs
36, Rue Albert Thomas
75010 Paris
FRANCE
☎ 001(2)331-42-38-95-76Fax 331-42-08-40-70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메이크업
정 진 우(아모스)
정 성 이(레 아)
☎ (0654) 471-5557, 465-4996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점인아트 맞은편

에일연예기획
에일아코디언교습소
연예행사 출장 반주
아코디언, 기타, 만도린
전자올겐 개인지도
☎ 221-5366
(휴) 016-651-5233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등동 성당 옆
☎ 안의원 (0653) 852-4666
약 국 (0653) 841-7217

전 일 관 광
신 혼 여 행 전 문
금 강 산 관광
관 광 버 스 대 절
조 선 (안토니오)
☎ (0652) 288-6666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길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현우  
 F A 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 이찬홍

- 금주 모임 : ① 예언자의 모후 Co. 회의 - 오늘 후 2시  
 ② 구역(반)장회의 - 28일(목) 전 11시  
 ③ 병자봉성체 - 29일(금) 후 2시
- zam회의 날 : 28일(목) 저녁미사
- 레지오 2단계 기사교육 : 25일~27일, 천호 피정의 집  
 황현표(안나), 김성옥(아가페), 강주섭(마태오)  
 최길순(소화대례사), 백순례(참마), 원준자(글라라)
- 중고 교리교사연수 : 30일~31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유아세례 : 30일(토) 후 5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 다음주 31일(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 : 7월 영세만 매주 수요일 후 7시 30분  
 보좌 신부님
- 주님봉헌축일(2월 2일) 초축성 수녀원에 신청바랍니다 : 제대초  
 가정초, 계병, 포도주
- 금주 전례 : 해설 - 송귀현, 독서 - 임성진, 소인순
- 차주 전례 : 해설 - 김옥영, 독서 - 김한영, 강양금
- 금주 정소 : 30일(토) 후 2시, 프란치스코회, 상아보탑 Pr.
- 차주 정소 : 2월 6일(토) 후 2시, 진복회, 조물주의 모친 Pr.

□ 지난주 봉헌금 : 1,895,600원 □ 교무금 : 2,318,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 무 실 212-3231 주임신부 박병준  
 보좌신부 212-37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최승호

- 오늘 모임 : 사목협의회 총회 - 공식미사 후  
 \* 사목회 임원, 제단체장, 구역(반)장 참석바람
- 주간 모임 : ① 레지오 2단계 기사교육 - 25일(월)~27일(수), 천호, 김영원(낸시) ② 세영세자 첫교백(성탄영세자) - 27일(수) 후 7시 30분 ③ 외곽교우부부초대 - 28일(목) 후 7시 30분  
 ④ 초등부 자모회 - 30일(토) 후 2시
- 차주 모임 : ① 예비신자 환영식 - 공식미사 중 ② 성소후원회, 구역(반)장 모임, 제대회, 애령회 - 전 11시 ③ 청년회 - 후 8시  
 ④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 수고하셨습니다 : M.E 75차 주말 수료 - 김종균, 마옥연, 부부 문승민, 양승숙, 부부, 유동욱, 김형은, 부부, 정상희, 오영숙, 부부
- 주님봉헌축일(2월 2일) : 제대초 봉헌받습니다.(사무실)
- 피정중인 안 벨리네타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20일(수)~29일(금)
- 사랑 나누기 줄도리셀 모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사제관 수녀원 봉헌금(단위 - 만원) : 인자하을 어머니 Pr. 20  
 이우순 30, 김금례 10, 주영환 10, 김순복 4, 유정희 5, 김동석 20  
 박종숙 10, 강명환 30, 손길선 2 (신림누계 8,777 입금누계 - 5,840)
- 정소 안내 : ① 금주 - 은총의 어머니 Pr.  
 ② 차주 - 인자하을 어머니 Pr.
- 금주 전례 : 해설 - 김계옥, 독서 - 이중국, 김원임  
 봉헌 - 김용문, 임윤순
- 차주 전례 : 해설 - 마옥연, 독서 - 김호중, 임금자  
 봉헌 - 송영섭, 신금옥
- 김사헌금 : 김양남 3만, 김중은 5만

□ 지난주 봉헌금 : 1,063,590원 □ 교무금 : 1,385,000원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 무 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보좌신부 291-2018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강영만

-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 공식미사 후  
 ② 셋별, 승리의 여왕 꾸리아 - 후 7시  
 ③ 청년회 - 공식미사 후 \* 많은 참석바랍니다.
- 차주 모임 : 성체회 - 29일(금) 미사 후
- 일림 : ① 98년도 교무금 완납과 99년도 교무금 신립을 바랍니다.  
 ② 1년 동안 쓰여질 제대초(주님의 봉헌 대축일)를 봉헌 받습니다. 2월 2일까지 아가페회(성물판매)에 신청
- 김사헌금 : 익명 5만 \* 감사합니다.
- 차주 정소 : 후상리
- 금주 전례 : 해설특전 - 김옥화, 공식 - 이원규  
 독서특전 - 이광일, 임은영, 공식 - 배기승, 이인식  
 제물봉헌 - 한중길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특전 - 김순자, 공식 - 최숙경  
 독서특전 - 서정만, 이마자, 공식 - 최동열, 최은경  
 제물봉헌 - 강영만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927,270원 □ 교무금 : 942,000원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 무 실 291-0832 주임신부 한병현  
 수녀원 291-0833 수녀원(현관문) 291-1520 사목회장 이재갑

- ◎ 생활 말씀 : "즈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 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어둠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 성전 신축 헌금 납입현황 : 정문현(안드레아) 50만  
 주선우(스텔라) 20만, 익명 5만  
 소계 - 750,000원, 총계 - 435,378,494원
  - 오늘 모임 : 꾸리아 월례회 - 저녁미사 후
  - 예비신자 교리 : 29일(금) 저녁미사 후, 일요일 전 9시
  - 주님 봉헌 축일(1월 31일) : 제대초와 가정에서 사용하실 초 봉헌 받습니다.
  - 다음주일은 (사회복지주일) : 2차 봉헌있습니다.
  - 김사헌금 : 최건현(안드레아) 10만, 익명 3만 \* 감사합니다.
  - 금주 전례 : 해설 - 김윤오, 저녁 - 김희숙  
 독서 - 최준영, 송대규 이미란  
 제물 봉헌 - 이금민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 - 강신준, 저녁 - 송순례  
 독서 - 허호, 신이목, 강영숙  
 제물 봉헌 - 김자선 부부
  - 성당 정소 : 30일(토) 사도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 758,750원 □ 교무금 : 470,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 무 실 274-1004 주임신부 한기호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유진준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준식

- ◎ 제2성전 봉헌식 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 신축성당 비품구입 은인(단위 - 만원) : 김광중 13, 임성호 13  
 김진란 13, 박성화 30, 한춘자 30, 김연순 100, 캐봉희 10, 이재희 5.2  
 겨자씨 10, 태남순 20, 익명 6.5, 익명 1.3, 양문숙 5, 이순남 4  
 김홍수 30, 양은순 10, 익명 10, 미산리 100  
 아름다운신 어머니 Pr. 10 \* 감사합니다
- 제대회 : 26일(화) 전 10시
  - 주님 봉헌축일(2월 2일) : 봉헌초 개인별, 레지오별로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레지오 2단계 기사교육 : 25일~27일(천호), 박복자(아가다)  
 이명희(베네딕타), 김상숙(헤레나), 유영희(모니카)
  - 유아세례 : 30일(토) 후 4시, 29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금주 분당정소 : 2구역 30일 전 10시
  - 금주 전례 : 해설 - 박화신, 독서, 봉헌 - 1구역
  - 차주 전례 : 해설 - 최용성, 독서, 봉헌 -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 2,186,510원 □ 교무금 : 860,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 무 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정진수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인선

- 예비신자 교리 시간  
 ① 보좌신부님반 - 화요일 후 8시, 청년회  
 ② 수녀님반 - 수요일 전 10시 30분, 토요일 후 5시  
 ③ 주임신부님반 - 목요일 후 8시, 성인반
- 금주 모임 : M.E - 공식미사 후
- 차주 모임 : 요한회 - 공식미사 후
- 성서교실 : 26일(화) 후 8시 \* 마태오 복음  
 \* 사목회, 각단체 임원, 구역(반)장, 레지오 Pr. 간부 참석요망
- 구역분과 월례회 : 28일(목) 전 10시
- 초 \* 축성(2월 2일)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김사헌금 : 박용곤 부부 5만, 익명 4만
- 축하 혼배 : ① 30일(토) 후 1시  
 신랑 - 김경곤씨의 2남 김중국  
 신부 - 전귀천씨의 전성숙(요안나)  
 ② 31일(일) 후 1시  
 신랑 - 라희재(로마노)씨의 2남 리윤배(리우렌시오)  
 신부 - 이대근(마르티노)씨의 장녀 이수미(미카엘라)
- 98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고, 99년도 교무금을 신립합니다.
- 다음주 분당정소 : 2구역 9만
- 다음주 미사안내 : 정의의 거울Pr.(능하신 정녀)
- 금주 전례 : 해설 - 심연무(아오스딩), 독서 - 김공목, 정동임
- 차주 전례 : 해설 - 서동원(프란치스코), 독서 - 김중환, 박정현

□ 지난주 봉헌금 : 1,665,070원 □ 교무금 : 3,128,000원  
 □ 2차 헌금 : 505,57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